KB증권

FIRST TO THE MARKET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5년 7월 9일

미국주식 시황 Analyst 안소은
se.ahn@kbfg.com

US Market Pulse

관세 불확실성 높아졌지만, 4월초와 달리 덤덤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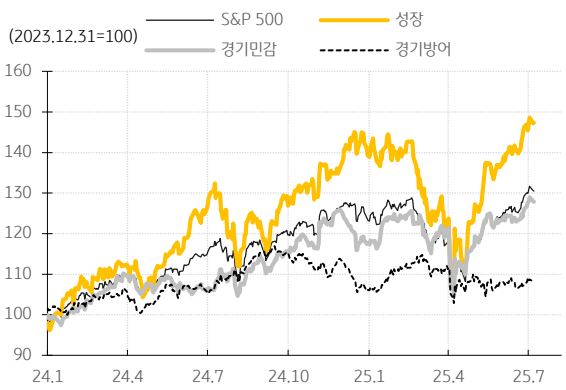
관세 리스크에 쉬어가는 증시, 4월초와 달리 큰 폭의 하락 압력은 제한

- 트럼프 관세 압박 지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에서 더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EU에 관세 서한 발송 가능성을 언급하고, 인도가 BRICS 포럼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처벌적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거론. 하지만 고율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된 4월초에 비해 시장 충격은 미미한 수준. 필수소비와 유틸리티 등 방어 업종들이 오히려 큰 폭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아님.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우세
- 구리와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 지난 2월 상무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산 구리에 5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러트닉 상무장관은 7월말 또는 8월초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이에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했고, 구리 생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 (FCX +2.5%) 주가는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밝힘. 제약사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1~1.5년 정도의 시간을 준 뒤, 외국산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일라이릴리 (LLY +0.6%), 화이자 (PFE +1.5%), 머크 (MRK +0.6%) 등 주요 제약주가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장 중 상승폭을 줄였음

추가 구조조정 소식에 상승한 인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마존 프라임데이 초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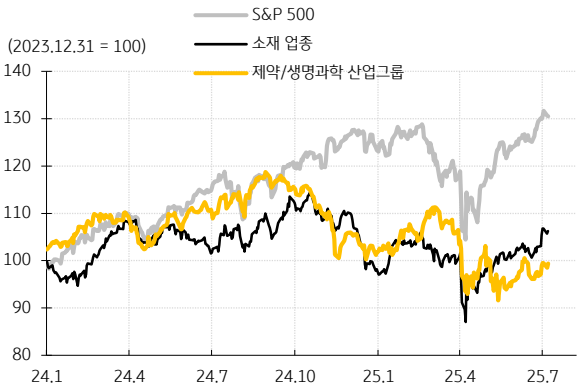
- 인텔 (INTC): 전일 7.2% 상승. 인텔의 추가 구조조정 발표에 주가 상승. 이번 감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인텔은 오리건주에 위치한 4개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총 529명의 인력을 오는 7월 15일부터 감원할 예정이라고 규제 서류를 통해 발표. 최근 몇 주 사이 인텔은 캘리포니아주 사업장에서도 100여 명의 감원을 단행한 바가 있음.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주가 상승
- 유통주: 전일 아마존 (AMZN)과 월마트 (WMT) 각각 1.8%, 2.3% 하락. 초기 기대와 달리 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 실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다는 소식에 유통주 주가 하락. 프라임데이 첫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 시장조사기관 Numerator에 따르면, 화요일 오후 4시 기준 프라임데이 평균 주문 금액은 58.37달러로 작년 (59.78달러)보다 1.7% 감소. 가구당 평균 소비액도 약 106.41달러로 작년 (110.40달러)보다 3.6% 적었음. 다만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이 작년 48시간에서 올해 96시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초기 실적만으로 전체 성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움. 프라임데이 시작 전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84%가 올해 프라임데이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작년 81%보다 많은 수준
- 태양광주: 전일 퍼스트솔라 (FSLR)와 선런 (RUN) 각각 3.4%, 9.8%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감세안 (OBBBA) 중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재무부에 지시했다는 보도에 태양광주 하락. 태양광과 풍력을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에너지 지배력과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OBBBA의 최종 통과 직전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금 공제 적용 기준이 유연화되며 태양광주 반등을 뒷받침했는데, 관련 기대가 되돌려질 수 있는 상황

그림 1. 관세 불확실성에 쉬어간 증시, 다만 4월초와는 다른 양상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2. 구리와 의약품 관세 예고, 관련주 변동성 확대



자료: Factset, KB증권

표 1.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상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INTC	인텔	103	IT	7.2	4.0	30.1
2	CVX	쉐브론	268	에너지	4.0	6.6	11.9
3	COP	코노코필립스	121	에너지	3.5	6.2	15.9
4	XOM	엑슨 모빌	492	에너지	2.8	4.4	13.3
5	AMD	AMD	223	IT	2.2	-4.2	76.2
6	TMO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161	헬스케어	1.8	4.4	1.6
7	CMCSA	컴캐스트	134	커뮤니케이션	1.6	1.9	9.6
8	FDX	페덱스	57	산업	1.5	4.3	20.5
9	UPS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75	산업	1.5	1.2	11.4
10	TXN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197	IT	1.5	4.6	48.4

자료: Factset, KB증권

표 2. S&P 100 편입종목 중 전일 성과 하위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KE	나이키	87	경기소비	-3.4	2.6	38.8
2	JPM	제이피모간체이스	786	금융	-3.1	-1.5	30.4
3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355	금융	-3.1	0.1	34.6
4	NEE	넥스트에라 에너지	149	유틸리티	-3.1	2.2	13.0
5	C	씨티그룹	160	금융	-2.3	1.4	45.6
6	WMT	월마트	775	필수소비	-2.3	-0.2	18.7
7	PM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277	필수소비	-1.9	-1.8	19.1
8	GS	골드만삭스	214	금융	-1.9	0.9	50.9
9	AMZN	아마존닷컴	2,329	경기소비	-1.8	-1.8	28.5
10	MS	모간스탠리	226	금융	-1.8	0.3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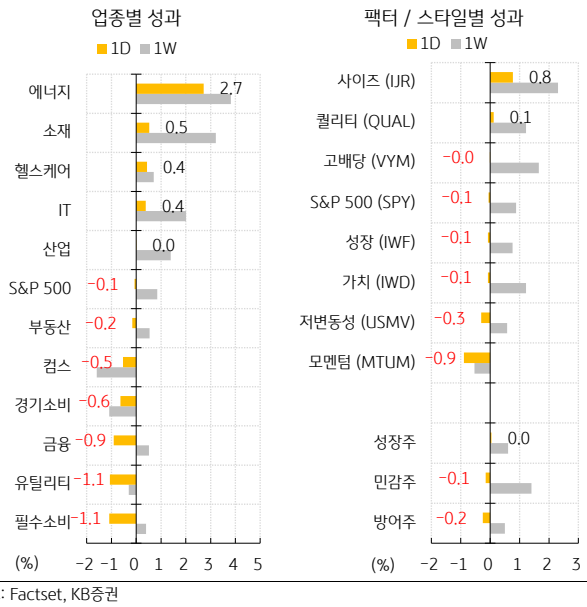
자료: Factset, KB증권

표 3. S&P 100 시가총액 상위 20위 성과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업종	수익률		
					1D	1W	3M
1	NVDA	엔비디아	3,904	IT	1.1	1.4	66.1
2	MSFT	마이크로소프트	3,691	IT	-0.2	0.1	40.1
3	AAPL	애플	3,137	IT	0.0	4.4	21.8
4	AMZN	아마존닷컴	2,329	경기소비	-1.8	-1.8	28.5
5	META	메타 플랫폼스	1,565	커뮤니케이션	0.3	-1.8	41.2
6	AVGO	브로드컴	1,278	IT	-0.9	0.9	74.2
7	GOOGL	알파벳 A	1,015	커뮤니케이션	-1.4	-2.3	20.5
8	TSLA	테슬라	958	경기소비	1.3	-8.0	34.2
9	GOOG	알파벳 C	956	커뮤니케이션	-1.4	-1.7	19.5
10	JPM	제이피모간체이스	786	금융	-3.1	-1.5	30.4
11	WMT	월마트	775	필수소비	-2.3	-0.2	18.7
12	LLY	일라이 릴리	737	헬스케어	0.6	0.3	7.1
13	ORCL	오라클	659	IT	1.0	11.5	88.4
14	BRK.B	버크셔 해서웨이	641	금융	-0.1	-1.7	-3.1
15	V	비자	607	금융	-0.6	1.7	15.0
16	NFLX	넷플릭스	543	커뮤니케이션	-1.1	-3.6	46.5
17	MA	마스터카드	507	금융	-0.5	2.2	17.2
18	XOM	엑슨 모빌	492	에너지	2.8	4.4	13.3
19	COST	코스트코 홀세일	437	필수소비	-0.6	0.1	8.5
20	JNJ	존슨앤드존슨	375	헬스케어	0.3	2.2	3.9

자료: Factset, KB증권

그림 3. S&P 500 업종 / 팩터 / 스타일별 성과



자료: Factse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